

감염사실을 알려야 할까?

:: 이명수 감염인 · 가명



HIV에 감염되었을 때 감염사실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알려야 할까? 하는 고민을 감염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겪었을 것이다. 감염사실의 고백이 나에게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알려야 한다. 하지만 성관계를 할 수 있는 배우자나 애인에게는 반드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에이즈에 감염된 지 어언 9년째. 지금은 그런대로 건강을 유지하며 살고 있다.

이놈의 AIDS란 병을 내 몸에 지니는 순간부터, 나를 포함하여 이 글을 읽는 감염인 여러분들도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금전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자신이 괴롭다고 해서 자해하거나 목숨을 버리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임을 몇 번의 자살시도로 알게 되었다.

내 자신이 생각해도 완벽한 자살이라 생각하며 네 번이나 시도했지만 항상 병원에서 깨어났다. 자살시도 뒤 내가 겪는 고통보다도 내 주위의 부모형제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준다는 것도 깨달았다. 예로 한겨울 아무도 오지 않는 침침산골에 홀로 들어가 수면제 몇 백알과 소주 두병을 마셔도, 결론은 살아있더라 얘기다. 하지만 살아있다고 해서 사는 것은 아닐 것이다. 터너군다나 에이즈 감염인으로 산다는 것은 더욱 힘들고 괴롭다.

이해해줄 사람이 없다면 알리지 않는 편이 좋아

그렇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신에게 떳떳하고 충실히 해야 하지 않을까?

나의 경우, 의료업에 종사하던 누님에게 에이즈사실을 털어 놓았다. 누님은 명절날 가족회의를 열어, 이때 조카들과 형수, 제수씨들은 없었다. 부모형제들에게 나의 에이즈 감염사실을 알렸다. 그리고 에이즈는 가족끼리 쉽게 전파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족들에게 이해시켰다.

그후 지금까지 가족으로부터 에이즈로 인해 정신적으로나 기타 어떤 피해나 고통을 당한 일은 없다.

나처럼, 가족 중 편하게 얘기할 사람이 없다면, 모두에게 함구하는 것이 좋겠다. 하지만 나를 이해하고, 편하게 대해줄 사람이 있다면, 정신적으로 커다란 위로와 위안이 될 수 있다.



한 일이지만, 각자 본인의 뜻대로 기회를 보아서 알려야 한다.

성관계 상대자일 경우 반드시
감염사실 알려야

특히 배우자에게 얘기할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충격을 적게 줄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본인 혼자서 배우자에게 알리기 힘들다면, 보건소의 에이즈담당자와 긴밀히 상담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분들은 우리를 잘 이해하고 도움을 가장 가까이서 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보건담당자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고 친밀해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상대라면 나의 에이즈 감염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현행법으로는 배우자나 성관계 상대에게 감염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되어 있다. 법을 차치하더라도, 나로 인해 내가 사랑하는 상대나 배우자가 에이즈에 감염된다면 나의 감염사실에 괴롭고 나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이 전염되었다는 죄책감까지 이중의 고통을 떠안는 꼴이 된다.

HIV바이러스를 몸에 지니게 되면 나의 감염사실을 주위 친구에게 알려야 할까? 하는 고민의 순간이 올 것이다.

나의 경험으로는 어떤 친구들에게도 에이즈 감염을 알리지 않! 것이 좋은 것 같다. 평소 친분만 있는 친구라면 스스로 에이즈 감염인이라고 공표해서 왕따당하지 않도록 하라! 충언이다.

다만 그 상대가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상대라면 나의 에이즈 감염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현행법으로는 배우자나 성관계 상대에게 감염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되어 있다. 법을 차치하더라도, 나로 인해 내가 사랑하는 상대나 배우자가 에이즈에 감염된다면 나의 감염사실에 괴롭고 나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이 전염되었다는 죄책감까지, 이중의 고통을 떠안는 꼴이 된다.

감염사실을 알릴 때에는 상대에 대한 배려와 사랑으로 조심스레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것이 가장 어렵고 고통스럽고 불편

지라는 것이다. 내 경험으로는 제일 위급할 때나 평소 어려움을 겪을 때 필요한 사람들이 그들이었다. 도움을 부탁받은 담당 보건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서 보살피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에이즈에 감염된 우리를 정부가 감시하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저 우리가 스스로 위축되어 그들을 멀리할 뿐이다.

자꾸 숨는다구 해서 많은 감염인들이 자꾸 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꼴으로 스스로 숨어들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본다. 몹이아 파서 나중에 긴급히 호소를 하는 어리석은 예들 몇 번 보았다.

에이즈 감염인 여러분!!

우리가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 한 것은 아니지 않나요?

다만 에이즈라는 병에 대해서 무력한 사람들뿐이지요.

조금 더 당당하게 사십시오.